

NET WORK



협회·회원사

위더스케미칼(주) 본사 확장 이전

정책기관

경기도 G FOOD SHOW 2008 개막
 지식경제부 2008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환경부 EPR 제도 시행 5년 성과 평가해
 식약청 식품포장지 신고전환 표시 의무화



유관단체

연세패키징포럼 친환경 포장 가이드 라인 세미나 열어
 (재)서울인쇄센터 제3회 서울인쇄대상 개최
 (사)한국물류협회 제16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개최
 (사)한국포장학회 2008년 정기총회 개최



업계동정

미쓰비시 플라스틱 가스차단 필름 출시
 (주)애경 스파크 해외디자인전 1위 차지해
 LG전자(주) 그린물류 도입, 확대 적용
 (주)유비케어 전자동 정제포장시스템 유팜 오토팩 출시

위더스케미칼(주)
본사 확장 이전
제2 도약 기대

위더스케미칼(주)(대표이사 신영수)이 본사를 확장, 이전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축필름 종합메이커인 위더스케미칼(주)은 30여년 동안 수축필름 생산에만 전념해 온 국내 포장산업 대표 업체로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업계를 선도해 왔다.

지난 해에는 친환경 PLA 필름을 개발, 차별화 된 경쟁력을 선보였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38-3

전화 : 031-769-8511/5

팩스 : 031-769-8516

경기도
G Food show 2008 개최
2천만 달러 수출계약 기대

aT 서울경기지사는 경기농산물 명품전시회인 'G Food Show 2008' 행사에 미국, 일본 등 12개국 해외바이어 15명을 초청, 수출상담회와 수출계약체결 등을 가졌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G Food Show 2008' 행사는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COEX 태평양 홀에서 개최, 도내 우수상품이 2백개 부스에서 전시됐다. 이 전시회에서는 품

질, 포장, 디자인 등을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자리다.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는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T 서울경기지사 김영범 차장은 "경기도 농식품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수출상담회가 경기 농산물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산업디자인大展 전국공모' 결과 발표
대상에 '서산 들국화주' 선정

충청남도 『제22회 충청남도산업디자인大展 전국공모』 출품작 심사결과 시각디자인분야에서 윤극노 씨(22세, 대덕대)의 '서산 들국화주'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 大賞으로 선정된 『서산들국화주』는 다양한 디자인과 포장 등 패키지를 이용, 서산들국화의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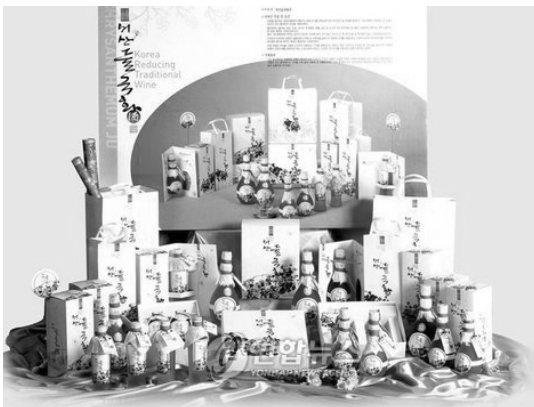
대상을 수상한 윤극노 씨는 "뜻밖에 큰상을 받게 돼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자신감과 삶의 방향의 지표를 결정

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충남이미지부문에서 △ 도내공예디자인분야의 김은하(대전보건대학) 씨, 일반이미지부문에서 △ 공예디자인 분야의 유선미(목원대) 씨와 일반시각디자인분야의 서지영·문진희(건양대) 씨와 △ 일반제품 환경실내디자인분야의 이용재·강유미(한서대) 씨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3백만원이 주어지고, 최우수상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상 등 기관장 표창과 함께 1백만원의 부상이, 우수상에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중부지원장 표창과 부상 40만원, 특별상에는 충청남도산업디자인협회장 표창과 20만원의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이번 출품작 심사는 2개 부문에서 총 5백42점이 출품된 가운데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0명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4개 작품, 우수상 4개 작품, 특별상 12개 작품, 특선과 입선 3백97작품 등 모두 4백1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大展 전국공모' 대상 수상작

진주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달 22일 시행 소 사육농가 신고 의무사항 이행절차

진주시(시장 정영석)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년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이 지난 달로 종료되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번 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모든 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도축 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되며, 도축장에서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 확인검사를 통해 유통과정의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 소비자가 믿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달 22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본 사업의 대행기관인 축

협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당시 기존 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축협에 신고와 동시에 귀표부착을 해야 한다. 또한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도축 또는 유통해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업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12월 22일 이후부터는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사항인 소가 태어나거나, 죽거나, 사고 팔시에는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정부가 공인한 12자리 개체 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한·중·일 수출입 RFID 사업 논의 수출입 파렛트 단위 RFID 적용 제의

최근 국내외적으로 RFID 확산을 위해 유통서비스 발굴과 이에 대한 사업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한·중·일 3국간 수출입 물류 분야에서도 RFID 태그가 부착된 지능형 파렛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RFID/USN

Korea 2008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 행사기간에 맞춰 한·중·일 3국간의 RFID 민간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한·중·일 RFID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지난 달 6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동북아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RFID 분야에서도 시장확산과 활용, 기술개발 수준 측면에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민간차원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RFID/USN협회를 비롯, 중국RFID산업연맹, 일본자동인식시스템협회 등 한·중·일 3국의 대표적인 RFID 민간단체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 한·중·일 3국간에 유통되는 수출입 파렛트 단위에 RFID를 적용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각국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현재 추진중인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체결된 '한·중·일 민간단체 상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중·일 3국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국의 RFID 관련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민간협력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RFID 도입 잠재력이 높은 한·중·일 3국간 협력체널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응용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및 일본의 대규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2008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막
 1백84개 업체 참석 성황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2008 한국국제기계박람회(KIMEX 2008)가 일본과 독일, 미국, 대만 등 14개국 1백8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달 19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반산업·금속공작기계와 금형 및 공구, 기계벤처산업관, 용접·주단조·열처리관, 에너지 이용·소방기기관, 수송·물류·포장기계관, 해외국가관 등 9개관에 9백19개 품목, 6천5백 여점의 제품이 전시됐다.

또 발전설비 관련 유력 중동바이어도 특별 초청해 국내업체와의 수출상담 및 현지공장 방문했으며 도 해외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 상하이, 칭다오에서 발굴한 현지 바이어 50여명도 참가했다.

환경부
EPR 제도 시행 5년간 성과 평가
 금속캔 등 24개 품목 재활용률 13.1% 증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5년간(2003~2007년) 시행 결과,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은 40.6%에서 53.7%로



▲ 지식경제부 2008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막

13.1% 증가했으며, 재활용량은 총 6천67천톤으로 약 2조2천6백43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EPR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제품의 생산자(또는 수입자)에게 출고량(수입량) 대비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제도 시행 당시 15개 품목에서 그동안 새로운 품목을 추가해 '08년 현재 24개 품목(4개 포장재·2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제도 시행 이후 국민 1인당 출고량은 '03년 46.62kg에서 '07년 53.16kg으로 14.0%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은 '03년 21.88kg에서 '07년 28.56kg으로 3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PR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재활용의무를 상향조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수준 향상과 제조사 및 재활용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EPR 제도 시행 5년간 총 6천67천톤을 재활용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약 2조2천6백43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소 4천2백60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립(소각)비용 절감 1만2천4백97억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만1백46억원 등 경제적 편익은 총 2조2천6백43억원이며 이 중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직접 비용 1조1천8백2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순이익은 1조8백18억원으로 추산됐다.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의 수입대체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EPR대상 품목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온실가스(CO₂)를 연평균 4백12천톤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PR 제도 운영에 따른 5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PR 대상품목 중 종이팩(27.8%), 형광등(20%), 전지류(25.5%) 및 전자제품(16.6%)은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 분석 결과,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전자제품은 민간부문에서 재사용되거나, 일부 중고품 형태로 수출되는 양이 재활용실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전지류는 크기가 작고 시계·장난감·전자제품 등과 함께 버려지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서 버려지기 쉽고, 형광등은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체계 문제와 다량배출장소에서 유가성이 낮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이마트와상품 탄소성적표지부착합의
상품 구매시 추가 포인트 제공

환경부(이만의 장관)와 (주)신세계 이마트(이경상 대표이사)는 지난 달 3일 탄소성적표지제

정책기관

도·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이마트의 자사브랜드 상품(PL)에 대해 단계적으로 탄소성적 표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초부터 우선 PL 상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출시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각 점포 출입구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인증상품 구매고객에게 자사 추가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마트 PL 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 등 이마트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0개 제품에 대해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부터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허가된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물류, 무선인식 기술 적용 2012년 1백60여개 물류거점 응용 예정

무선인식(RFID) 기술이 내륙물류기지 등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적용돼 화물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선인식 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 중 착수할 예정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백60여개 물류거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무선인식 기능은 사물에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신호를 이용해 해당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가시성이 크게 확대돼 물류기업의 효율 향상도 기대해 볼만하다.

또한 게이트 자동화를 통한 물류거점도 운영 개선을 통해 연간 3천1백94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내륙물류거점에 구축될 무선인식 인프라는 구 해양수산부에서 구축 운영 중인 항만의 무선인식 인프라와 통합돼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육해공이 연계된 수출입화물 흐름의 가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식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은 내륙 컨테이너기지외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무선인식 리더기를 설치하고 화물차량의 태그를 인식해 각종 물류업

무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더 나아가 가시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12월 중 착수 예정인 1단계 사업으로 수출입화물의 가시성을 확대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의왕 및 양산의 내륙 컨테이너기지 등 5개 물류거점에 적용할 방침이다. 물류 무선인식 도입 사업이 완료되면 운송사와 물류거점 운영사 등 물류주체는 다양한 업무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물류거점 운영업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송사는 차량관리 및 배차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 또한 화주기업은 화물의 출도착, 반입 등 화물 추적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물류가시성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무선인식 기반 물류거점정보 시스템을 추진 중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도 연계해 정보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 물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류정보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높아지는 것을 감안,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포장지에 신고전화 ‘1339’의 표시를 의무화키로 했다.

또한 국내 고추장 제조 회사들이 최근 중국산 다진양념을 첨가해 고추장을 생산하고 상품 겉표지에 고춧가루 함유량만 표시해 원재료 구성 성분의 정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다진양념 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사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를 게재해야 한다. 또 다진양념을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포장지 신고전화 표시 의무화
소비자, 식품 안정성 관심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멜라민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국세청
고급양주 전자태그 부착
유통과정 추적

국세청(청장 한상률)이 고급양주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를 부착, 유통의 전과정을 추

정책기관

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의 유통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품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전파를 이용해 물품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인 RFID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RFID 부착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페리얼' 1만5천병(21년산, 17년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참여업체는 총 1백35개로 제조업체 1개(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도매업체 24개, 유통음식점 1백개, 할인매장(이마트) 10개 등이다.

이번 사업은 고급양주에 RFID 태그를 부착해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경로(수량, 거래일 등)를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인식·관리하는 것으로 고급양주의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통 방지는 물론 비정상 주류의 유통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유통음식점 등에 비치된 '동글' (보완키나 ID를 저장한 장치)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진품확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진품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기존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제품 뒷면에 '진품확인 가능상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진품확인 가능업소 카운터와 테이블에 포스터를 부착해 소비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할인매장 '이마트'의 양재점, 천호점 등 10개 매장에 '진품확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진품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고급양주에 RFID를 부

착하게 되면 소비자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가짜양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 고급양주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제조사와 도매상은 음성적인 암시장이 없어져 매출이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급양주에 RFID를 부착하는 사업은 많은 초기 투자비용·기술적 완성도 미검증 등으로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 RFID 부착을 모든 고급양주로 확산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시범사업결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업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국립독성과학원 대국민 세미나 개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노출 저감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원장 조명행)은 지난 10월 31일에 "생활환경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화 방안 대국민 세미나"를 명동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의 2008년도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공동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의 후원을 받았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그 동안 언론 등

을 통해 자주 소개돼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생활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범 국민적인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출에 취약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주변 시설의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이해 및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이해 및 소비실태조사 또한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시설 및 음식점소 중심으로 생활환경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초등학교 주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음식점계 종사자 대상 내분비계장애물질 인지도 조사” 등의 연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대표들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 및 향후대응 방안, 일회용 용기포장 제품 사용현황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와 더불어 내분비계장애물질 저감화 노력을 위한 소비자 실천다짐대회가 이뤄졌다.

식약청 국립독성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학교주변 시설과 생활양식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어린이들이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음식업계 종사자들도 편의주의적인 생활방식을 고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저감화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RFID 기술 8건 국제표준 채택 전망
모바일RFID 국제표준화 선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태그(RFID)기술 8건이 국제표준으로 대거 채택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모바일 RFID 기술 관련 국제표준안 8건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자동인식기술위원회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돼 국제 표준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지난 달 24일 밝혔다.

8건의 신규 표준화 제안이 하나의 회원국에서 일괄 제출돼 모두 승인된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R&D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혁신적 R&D·표준화 연계 시스템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승인된 8건의 신규표준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제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 LG전자의 표준전문가들을 해당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 활동하게 해 모바일 RFID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RFID 서비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이 모바일RFID 포럼을 통해 국내 단체표준을 통일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와인정보서비스, 택시안심 서비스 등의 모바일RFID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연세대학교패키징포럼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세미나 열어

패키징 산업 효율적 발전 방향 제시

연세대학교 패키징포럼(회장 윤영욱)은 지난 달 6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및 포장폐기물관리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식품류 관련 업체 및 포장관련업체 / 민간 환경 단체 등 약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한국환경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된 포장재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후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친환경 포장가이드라인 및 포장폐기물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윤영욱 연세패키징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산·학·연간의 합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정연만 자원순환국장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제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포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말



▲ 연세포럼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 세미나 열어

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손희만 산업지원이사 역시 녹색 성장을 강조하면서 “포장산업이 발전할 때 국내 산업계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희철 과장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팀장,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김재능 교수가 기조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희철 과장은 “포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면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마련 후, 포장산업이 발전하고 생산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포장폐기물관리제도의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태희 (사)자원순환연대 팀장은 포장폐기물 관리 규정의 정비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PVC 재질의 사용금지를 확대하고 현재의 재활용 우선정책과는 맞지 않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능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교수는 “물류합리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장 표준화를 강조하면서 물질순환 3R 가이드 라인 원칙에 충직한 친환경 포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한 △ 포장재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 이명용 부원장) △ EPS 포장재 효율적 관리방안(EPS재활용협회 최주섭 부회장) △ 합성수지 연차별 줄이기 개선방안(한국포장용기협회 석용찬 회장) △ 포장재 폐기물 부담금제도 및 대기환경개선법 시행에 따른 업계 문제((사)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 △ 포장재질 및 공간비율 측정((재)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재영 과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최주섭 EPS재활용협회 부회장은 EPR제도 시행 이후 환경오염 물질로 인식됐던 스티로폼의 성공적인 재활용을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EPS 인식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환경부 김영옥 사무관, 한국환경자원공사 공승대 파트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조윤미 본부장, 대한주부클럽 이영주 이사 등이 참석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조윤미 본부장은 “포장재질별 특성에 따른 재활용 방안이 더욱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돼야 하는 만큼 규제에 의한 제도 보다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김영옥 사무관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업계와의 마찰을 빚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불필요’한 제도를 줄이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연세패키징 포럼’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과 관·산·학·연간의 상호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한국 패키징산업의 발전과 연세 패키징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 윤영욱 연세포럼 회장

‘생활 속의 인쇄’ 주제로 문학공연 펼쳐

(재)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와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기술정보협회가 후원하는 ‘제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생활 속의 인쇄’란 주제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철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진수 부의장, 한나라당의 정두언 국회의원, 민주당의 변재일·김재윤·백재현 국회의원과 출판협동조합의 김중영 이사장, 서울디자인센터 장윤희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조합이사장협의회 배조웅 회장, 인쇄학회 오규남 회장, 동국대 RIS 사업단 이의수 단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충원 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 대한인쇄연구소 고수곤 이사장,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김진배 회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직승 전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 민재기 명예회장 등 인쇄관련업계 내외귀빈과 인쇄문화산업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됐다.

2008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인쇄산업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과 함께 조달행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이번 서울인쇄대상은 인쇄기술의 향상을 유도하고 고품질 인쇄물 생산을 촉진, 국내 인쇄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달간 공모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예의 대상은 (주)태신인팩(대표이사 서명현)에서 출품한 ‘하루 같은 40년, 40년 같은 하루’가 차지했다. 그리고 각 부문별 금·은·동상은 총 9작품이, 입선은 책자인쇄물에서 9작품, 홍보인쇄물에서 8작품, 생활인쇄물에서 6작품으로 총 23작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에 앞서 장윤희 심사위원장(서울디자인센터 대표)은 “올해 출품작의 질은 과거보다 일부 향상됐지만, 출품의 양은 만족스러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히면서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좋은 환경이돼 줄 것”이라고 심사평을 대신했다.

인쇄문화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및 개막식’에서 조정석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자인과 인쇄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로서, 인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다량으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인쇄인들은 장인의 정신과 손길로 예술의 혼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정석 조직위원장은 “이 축제의 자리야말로 그동안 인쇄문화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할 뿐만 아

나라 보다 우수한 인쇄물 제작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인쇄문화중주국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업계가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는 것이 간절한 소망" 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이상철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유수의 도시들과의 경쟁을 거쳐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디자인 중심의 도시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디자인 수도의 위상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우수한 인쇄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철 정무부시장은 "관련 업계 간 화합의 장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인쇄산업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정두언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변재일, 김재윤, 백재현 국회의원 등이 '제3회 서울 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 대한 축사와 함께 인쇄업계 발전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인쇄산업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은 △ 정용식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운영위원장 △ 김남수 운영위원 △ 남원호 운영위원 △ 이기섭 운영위원 △ 김원희 운영위원이 수상하였으며, 조달 행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 안태복 (주)디엔비에드 대표이사 △ 반덕환 세진맥피아 대표 △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개막식 특별 주제공연이 현대무용단 '에코'의 'Life is Printing'이란 주제로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퍼포먼스 공연으로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재)서울인쇄센터 제3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개최

유관단체

이번 인쇄문화축제는 '생활 속의 인쇄'를 주제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인쇄 체험과 디지털인쇄 체험(나만의 캘린더 만들기), Mission 특별 수사대, 인쇄가 열리는 나무 등의 체험행사와 인쇄여행이란 내용으로 기획 및 디자인, 제판, 인쇄, 제책 등 인쇄과정과 운전인쇄, 오프셋인쇄, 실크인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인쇄기술과 기법 등을 선보여 인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비보이 그룹 X-crew와 전자현악 Luna의 문화공연이 3회에 걸쳐 펼쳐져 시민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한국RFID/USN협회

RFID 특허 업계 이슈 부상

무료 컨설팅 지원 23개사 신청

무선인식(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특허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특허 관련 이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RFID/USN협회(회장 김신배)가 최근 마감한 RFID/USN 무료 특허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총 23개 업체가 신청해 특허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관련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 사업은 RFID/USN 업체들이 특허 관련 문제로 겪는 애로점을 해소하고 특허에 대한 경쟁력과 대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 국내·외 특허출원을 위한 기획과 준비 △ 특허등록과 개선 △ 특허권 관리와 활용 △ 특허분쟁 대응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회는 심사를 통해 20개사를 선정하고 2개 기업 당 1명의 전문 변리사를 배정해 3개월간 총 30시간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RFID 특허 관련 교육도 활기를 띄고 있다. 협회가 1차(10월 28일~30일)와 2차(11월 11일~13일)에 걸쳐서 진행한 RFID/USN 특허교육 실무자과정에는 평균 30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했다. 또 최근 진행된 경영자과정에도 20명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 경영진도 특허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관심 증가는 국내에서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이슈가 전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70건에 불과하던 RFID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해 1천2백1건으로 17배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출원건수도 8백91건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 특허 풀(Patent Pool)로 발족한 RFID 컨소시엄이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반독점 가능성 여부에 대해 최근 미국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컨소시엄 측이 발표할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함께 제기할 특허 문제가 국내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현재 두 지원 사업과 함께 국내·외 RFID/USN 특허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이를 마무리한 뒤 특허 검색 시스템에 결과를 반영, 기업들에게 더 많은 특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특허 출원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침해 특허에 대한 분석과 특허 분쟁에 대비한 대응 프로세스 마련 요구가 상당할 정도로 특허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특허 관련 지원사업 정례화와 정보제공 활성화 등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안도물류협회

제16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개최

(주)하이닉스반도체 남정곤 전무 석탑산업훈장 수상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주관하는 '2008 제16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3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 (사)한국물류협회 제16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개최

유관단체

이날 시상식에서 27개의 단체 및 개인 정부 포상이 이뤄졌으며 (주)하이닉스반도체의 남정곤 전무가 석탑산업훈장을, 권혁은 (주)하나로티앤에스 대표와 김정환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국물류대상은 1993년 제정돼 올해로 16번째를 맞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류부문 정부포상이다. 한국물류대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 노력을 통해 국가경제의 비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물류혁신과 가치창출에 크게 노력한 기업(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과 물류혁신 풍토조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유통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물류협회는 물류대상 시상식과 함께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15개 트랙, 54개 섹션으로 제16회 글로벌물류혁신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포장과 관련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신준섭 교수가 '친환경포장 분야의 국제규격화 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한국포장학회

2008년 정기총회 개최

환경을 배려한 포장의 기능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 열어

(사)한국포장학회(회장 이근택)는 지난 달 25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에서 2008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7월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근택 회장은 “국내 대학내 포장학과의 신설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을 배려한 포장의 기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 시민모임의 문은숙

박사가 ‘소비자 친화형 포장 현황’에 대해 강연했으며, (주)이엔포레코 유영선 박사가 분해성 포장재의 국내외 개발 및 이용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표준협회 이강대 박사는 ‘융합과 시대를 여는 포장과 물류의 서로 다른 상상력의 만남’을 주제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박광칠 사무관은 탄소성적표지 제도와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 (사)한국포장학회 2008년 정기총회 개최

이어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와 '유한요소법에 의한 포장용 골판지의 구조 및 강도 해석'을 시작으로 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경북과학대학, 경남대학교 식품생명학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등에서 준비한 연구발표가 진행됐다.

한국포장학회는 포장기술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포장산업의 기술수준제고를 위해 선진포장기술 유입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목표 아래 1994년에 설립, 발전하고 있다.

한국주방생활용품생협진흥협회

반찬통 등 플라스틱 재질 '환경호르몬' 세미나 열려

비스페놀A 정보 올바로 제공해야

환경호르몬에 대해 널리 알려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환경호르몬이 있는지, 어떤 물체에서 노출될 수 있는지 논의의 장이 열렸다. 특히 환경호르몬의 유해성과 관련해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일방적 유해성'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한국주방생활용품생협진흥협회(회장 김준일)는 지난 달 12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환경호르몬 이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흔히 반찬통, 도시락, 젓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 중 일부에서 환경호르몬이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호르몬 배출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있어 '무조건적인 유해성' 논란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호르몬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는 낮은 만큼 유해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환경연합, 한국독성학회, 환경부 화학물질과, 충북대 약대 등 환경호르몬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고 학계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 협의회 개최

완구제품 포장공간비율 관련 규정 개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시대의 전략적 대응 및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찾고 양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안으로 ▲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환경산업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에서는 ▲ 완구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관련 규정 개선 ▲ 유탄유 폐빈용기의 고유번호 부여 및 재활용 처리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완구업계 특성상 캐릭터 완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한 여러 종류의 소량 주문 제품의 경우 같은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제품은 동일 포장용기 사용으로 인해 과대포장 범규를 위반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캐릭터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 완구 시장에서 동일 포장 용기를 사용해 판매되므로 임의대로 포장을 바꾸기 어렵고 재포장할 경우에도 소요비용이 과도해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각 실·국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중소기업간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중 상근부회장 외 환경분과위원회 위원 등과 환경부 홍준석 환경전략실장 외 각 실·국 주무과장들이 참석했다.

(사)한국TC협회

중국 수출 제품 사용설명서 세미나 개최

포장 박스, 라벨 GB항목 규정

(사)한국TC협회(회장 김운양)가 오는 20일 “중국국가표준(GB)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서 사용설명서 정보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중국국가표준(GB)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GB는 국제 표준보다 우선하는 강제규정으로 제품의 취급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용설명서는 GB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GB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기업이나 개인이 그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TC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정보표시방법이나 글꼴 때문에 제조기업이나 수출기업이 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자사 상품의 사용설명서에 관련된 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설명서/포장박스/라벨 등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하는 GB항목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인쇄 및 제품 UI, online help를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자코드, 폰트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며, 일본 기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기업이 GB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일본 TC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제지업계
폐지 값 떨어져 종이 업계 '숨통'
 폐박스 46% 하락, 원가부담 크게 줄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솟기만 하던 폐박스와 폐신문지 등 폐지가격이 경기 침체 여파로 급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골판지 및 신문용지 생산업계를 짓눌러왔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골판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산물 등 포장박스의 원재료인 폐박스 내수 가격이 지난 7~8월 톤당 최고 19만원 선에서 이달 들어 13만원 선으로 46%나 떨어졌다.

신문용지의 원재료인 폐신문지 내수 가격도 같은 기간 톤당 31만원 선에서 25만원 선으로 내렸다.

이는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내수 및 수출용 박스 수요가 줄어든 데다 '폐지 블랙홀'로 일컬어졌던 중국 제지업계가 잇달아 가동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올림픽 특수가 끝난 뒤 폐지 및 상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으로 비싼 값에 폐지를 수출하던 국내 폐지업체들이 수출물량을 국내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산 폐박스 및 폐신문지의 중국 수출물량은 지난 3월 최대 4만 1천3백68톤에서 지난 달에는 1만5백92톤으로 줄었다.

이달에도 수출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골판지업계 관계자는 "한때 '폐지 대란'까지 초래했던 폐지가격이 거의 1년 전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원가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다만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 판매 부진도 계속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폐신문지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수입 폐신문지 가격은 한때 톤당 최고 3백50달러까지 올랐으나 현재 톤당 2백70달러로 하락했다.

신문용지업계 관계자는 "원가 가운데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폐신문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폐박스나 폐신문지 가격은 다음 달에도 톤당 1만원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쓰비시 플라스틱
가스 차단 필름 출시
 포장재료 분야 적용 기대

일본계 화학회사 미쓰비시 플라스틱은 가스 차단 필름 '엑스베리어'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수증기 투과율이 하루 당 최고 0.0001 g/m²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증기 차단 기능은 물론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가스의 투과를 막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또한 엑스베리어 필름은 내열, 고온 내구성 및 내습, 기후 내구성 및 굴곡 내구성 같은 맞춤형 기능들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업계동정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향후 3년간 50억엔이라는 매출 목표를 수립한다는 MPI는 기술 보강을 통한 가스 차단 품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포장재료 활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새로 개발한 제품들은 향후 포장재료 분야인 의료용 카테터, 안약 및 콘택트 렌즈 등 외에도 반도체칩, 장치 기관 등 정보전자 분야에서도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MPI는 엑스배리어가 앞으로 차세대 평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애경
'스파크' 해외 디자인전 1위
순샘 대나무 죽초액 브론즈 상 수상

(주)애경(대표이사 최창환)의 대표적인 세탁세제 '스파크'가 글로벌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 해외 디자인전에서 1위를 차지한 (주)애경 "스파크"

인 '2008 펜타어워드(PENTAWARDS)'에서 생활용품 부문 1위인 플래티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세계 39개국에서 6백88점이 출품됐다.

애경이 출품한 스파크(2.3kg)는 드럼세탁기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언어 없이도 제품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 대한민국 스파크가 플래티넘상을 수상했고 음료 카테고리에서 미국 코카콜라, 푸드 카테고리에서 영국 Tesco, 보디 카테고리에서 네덜란드 보디용품, 럭셔리 카테고리에서 일본 제품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애경의 순샘 대나무 죽초액이 3위인 브론즈 상을 동반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어워드의 수상작은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파리의 디자인 팩 갤러리와 상하이 LuxePeak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암웨이(주)
국제 패키지 디자인상 수상
조화 및 균형감 담아

한국암웨이(주)(대표이사 박세준)의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의 '크림 엘엑스'가 HBA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부문에서 국제 패키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국제 패키지 디자인상은 뷰티·헬스 업계를 대표하는 패키지 전문가·디자이너·전문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1백여명의 자문위원단이 엄정한



▲ 한국암웨이(주) 국제 패키지 디자인상 수상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크림 엘엑스’는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부문에 있어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당당히 인정받게 됐다고 한국암웨이측은 밝혔다.

크림 엘엑스 패키지 작업을 담당했던 아티스트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올리비에 반 도네는 “크림 엘엑스의 패키지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패키지 콘셉트를 조화롭고 균형감이 있으며 동시에 모던하고 대담함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업계
디자인에 ART 입혀
 이니스프리, 맥 등 제품에 접목

화장품도 디자인 싸움이다. 패션에 예술 작품을 결들인 컬레버레이션(collaboration) 옷들이 나오더니, 뷰티 브랜드에서도 ‘누가 디자인 했냐’가 중요한 ‘아티젠(Art Generation · 예술

디자인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두달 만에 4만여개가 팔린 이니스프리의 남성 화장품 ‘원스텝 플루이드’의 인기 비결도 용기에 있다. 자연을 담은 싱그러운과 20대 남성의 활동성을 절묘하게 어울린 주인공은 천재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조바노니이다.

이탈리아 생활 브랜드 알레시(ALESSI) 등에서 재치있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온 그는 새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데 8개월이란 시간을 들였다.

그는 “녹색 줄기와 허브잎을 형상화한 디자이너 패키지로 20대 남성 아티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싶었다”며 “원스텝 플루이드의 경우 털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고 누르면 내용물이 나오는 편리함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헤라도 올가을 메이크업 제품에 구두 디자이너 지니 킴의 감각을 보였다.

특별한 가죽 소재 디자인으로 포장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스와로브스키의 객원 디자이너인 야스민 후렐도 크리스털로 ‘헤라 알케미 골드 콤팩트’를 꾸몄다.

코리아나화장품 제니스웰은 출시부터 윈도 페인팅 작가 나난과 극사실화 작가인 이사라의 작품을 패키지에 적용한 아트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시즌 알렉산더 맥퀸과 손잡았던 맥은 올가을엔 화려한 색채감으로 유명한 인도의 패션 디자이너 매니쉬 아로라, 엠마누엘 웅가로와 함께 컬러 컬렉션을 선보였다.

업계동정

매니쉬 아로라의 화려한 패키지 디자인이 하나의 패션 작품을 떠올릴 정도다.

화가 앙리 마티스의 손녀딸이자 아티스트인 소피 마티스는 한정판 향수를 선보인다. 50개의 향수병에 하나 하나 다른 디자인을 그려 넣은 이 향수는 전 세계 지정 백화점과 부티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샴푸에도 디자이너의 감각이 깃들고 있다. 한방 샴푸 '려(呂)'는 패션디자이너 정구호가 옛 여인들의 풍성한 머리술을 콘셉트로 용기 디자인까지 해 화제가 된 제품이다.

디자이너가 용기 아이디어를 낸 건 국내 샴푸로는 최초다.

'려(呂)'의 구학현 브랜드매니저는 “‘아티젠’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처음부터 제품 콘셉트를 살린 디자인까지 철저히 챙겼다”며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 출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케미칼(주)
아모라닉 포장 변경
알루미늄 포장재질로 안정성 높여

SK케미칼(주)는 'SK아모라닉' 제품군의 포장을 지난 달 11일 변경했다.

SK아모라닉은 베타-락타마제(β -Lactamase)를 생성해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에 의한 감염증 질환 치료에 두루 처방된다.

디자인이 변경된 약은 아모라닉 정과 아모라닉



▲ SK케미칼(주) 아모라닉 포장 변경

시럽, 아모라닉 듀오시럽 등 정제와 시럽 두가지 제품이다.

정제는 PTP포장에 비해 빛과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알루미늄으로 포장재질을 변경해 제품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포장 단위도 1백정에서 96정으로 변경된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유리병 재질의 기존 시럽제 용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 유통 및 보관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 약효 성분 함량이 다른 아모라닉 시럽(딸기 향)과 아모라닉 듀오 시럽(오렌지 향)의 시각적 구분을 위해 용기 뚜껑의 색상을 주황색과 흰색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주)두산
테크팩사업 지분 1백% 매각
4천억원 합의

(주)두산은 국내 최대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테크팩사업(이하 테크팩)의 지분 1백%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달 13일

밝혔다.

두산과 MBK파트너스는 테크팩의 거래가치를 4천억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으며 올 연말까지 거래를 종결기로 했다.

두산은 분할 시 테크팩에 이관될 차입금 1천9백9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8억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두산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테크팩의 안정적 현금흐름과 국내 포장용기 시장점유율에서의 확고한 1위, 그리고 기술력과 인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이번 매각으로 두산은 약 1천9백30억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하며 부채비율은 46%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매각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테크팩 매각대금을 차입금 감축과 향후 다양한 기회 포착을 위해 잉여 현금으로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2006년 1월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래 계열사 지분매각을 통한 순환출자 해소, 사업 매각 및 분할로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950년대 국내 최초로 유리병 사업에 진출한 바 있는 테크팩 사업은 종합포장재 기업으로 성장해 유리병, 캔, PET 등 주류와 음식료 제품에 필요한 포장용기를 생산해 왔다.

특히 포장용기 부문에서 국내 1위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다.

분할 공시 기준 테크팩의 자산은 2천9백49억원, 부채는 2천5백85억원이며 2007년 기준 매출액은 2천8백89억원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목장우유 2년새 1억개 판매돌파
 최신 공법 적용, 프리미엄급 원유 장점 결합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이 야심차게 출시한 프리미엄급 웰빙우유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 있는 서울우유(목장우유)’가 출시 2년 만에 1억개 판매량(1천ml)을 돌파하는 등 국내 우유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기존 종이 카톤 우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목장우유는 우유 본래의 맛과 용기의 편의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우유는 올초 소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 210ml짜리 소용량 제품도 선보였다.

목장우유는 프리미엄급 1급A 원유(原乳)와 최신 공법을 적용, 품질과 안전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 포장 때 유입될 수 있는 공기를 미리 필터로 여과하는 ‘HEPA 공법’과 ‘클린 충전공법’, 제품 입구를 한 번 더 밀봉하는 ‘세이프티 실링(Sealing)’ 등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 같은 제품력을 통해 목장우유는 국내 우유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목장우유 매출은 6백5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소용량 등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여 예상 매출이 7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는 올해 목장우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가

업계동정

수 이승기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 마케팅이 주효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LG전자(주) 그린 물류 도입 향후 해외사업장 확대 적용

올 초부터 저탄소경영을 준비해온 LG전자가 국내 IT 제조업체 중 최초로 내년에 국내 사업장부터 '그린 물류'를 도입해 향후에는 전 해외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 인력 운용도 '그린'에 맞춘다는 목표다.

LG전자(주)(대표이사 남용)는 "현재 전문컨설팅 업체와 그린 물류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에 컨설팅 계약을 완료하고 상반기부터 그린 물류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는 우선 발생 빈도를 예측하기 쉽지 않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비용 낭비가 심한 역물류부터 그린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역물류란 소비자에게서 공급자로 이어지는 물류로 △ 고객이 제품 구입 후 물건을 환불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되돌리는 반품물류 △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소비자에게서 회수하는 회수물류 △ 고객이 폐기하려는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을 수거하는 폐기물류 등으로 구성된다.

LG는 이어 화물관리시스템(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업장별로 구축해 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동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종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G전자는 국내에 있는 전 사업장을 그린 물류 체제로 개편한 뒤, 이를 해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저탄소경영을 위해 올해 2월 최고기술책임자(CTO) 밑에 환경전략팀을 신설하고, 3월에는 최고공급망관리책임자(CSCO)에 HP 미주지역 부사장이었던 디디에 세네보를 영입했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식음료업계 속보이는 '누드 마케팅' 인기 음료, 우유, 제과 등 투명 용기 채용 잇달아

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속을 몽땅 보여주는 '누드마케팅'이 인기다.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용기 제품으로 '속보이는 전략'을 속속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멜라민 파동 등 먹거리 제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눈을 통해 제품을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하는 꼼꼼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월 해양심층수를 탈염 정제해 상품화한 '울릉 미네워터'를 출시하면서 기존 PET병을 투명한 유리병으로 교체했다.

패키지 자체를 고급화하면서 검정색과 은색을

조화롭게 사용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주 소비계층이 20대 여성인 점을 고려해 한 손에 쥐거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 편한 크기(3백30ml)로 제작했다.

CJ제일제당측은 “투명한 패키지 개발은 자사 디자인센터를 비롯해 세계적인 영국 디자인 회사 키네 듀포트(Kinneir Dufort)와 ‘아이리버’ ‘애니콜 가로본능 휴대폰’ 등으로 유명한 국내 디자인 컨설팅 전문회사 이노디자인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해양심층수 전문가 유철안 과장은 “병 제품이 젊은 여성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스타일리쉬하고 고급스러워 ‘Must Have’ 아이템으로 자리잡아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 5월 해양심층수 ‘블루마린’을 선보이면서 투명용기를 채용했다.

투명 사각형 페트병에 해저를 연상케 하는 푸른색 라벨을 적용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롯데칠성은 앞서 지난해 10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감각의 후레바 음료 ‘아일락(我日樂)’ 용기를 ‘누드 캔’으로 선보였다.

아일락은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패키지 디자인과 신용기를 도입해 10대들의 패션 아이콘으로써의 느낌을 강조했다.

당시 롯데칠성의 광고 모델 고아라가 불렀던 CM송 ‘보일락 말락~’은 한때 유행어로 10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매일유업의 아침에 먹는 웰빙우유 ‘새싹&씨

앗’ 제품도 우유 속에 든 곡물과 새싹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용기를 사용했다.

또 기존 우유 제품과는 다르게 봄철 기운을 북돋울 수 있는 자연의 싱싱함과 함께 녹색 이미지를 표현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야쿠르트의 ‘레드자몽 C.C’도 기존 음료와 차별화를 위해 혁신적 PET용기인 ‘누드 캔’을 사용했다.

붉은 빛의 투명한 스티커 라벨 속으로 제품의 내용물이 투명하게 비쳐 상태파악이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다.

해태제과의 ‘차일리톨 333 껌 후르츠 맛’도 투명용기에 담아냈다.

회사측은 ‘후르츠 맛’이라는 신제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명 용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기린은 고급 전병과자인 ‘빠빠요뜨’와 ‘고프레’ 제품의 겉 포장지 양쪽에 투명한 비닐 부분을 넣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얇고 바삭한 과자 사이에 부드럽고 은은한 크림이 가득한 프랑스푹 고급 샌드 쿠키로 기존 제품과 다른 고급스러운 제품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롯데제과도 ‘비타 씨 박스’의 전면부를 투명한 포장으로 만들어 레몬의 이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근 원형 플라스틱 용기 제품의 가운데 부분에 투명 용기를 넣어 제품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남아있는 양까지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돌 코리아(Dole Korea)의 ‘후룻볼’, 매일유업의 ‘썬업뷰티’, 대상의 ‘메주로 담근 순창집된장’, 해태제과의 쌀브랜드인 ‘자

업계동정

연애'도 살짝 속살을 공개하는 제품 포장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까지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로 투명용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페르노리카코리아 3중 위조방지 기능 달아 정품마크 직접 확인 가능

위스키업체 (주)페르노리카코리아(옛 진로발렌타인스)는 3중 위조방지 기능을 병 마개에 장착한 임페리얼 트리플 키퍼'를 출시했다고 지난 달 18일 밝혔다.

임페리얼 트리플 키퍼' 시스템은 캡을 개봉하는 순간 '드르륵' 소리와 함께 손 끝에서 강한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IMPERIAL' 로고가 개봉 후 '正品(정품)' 마크로 바뀌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역회전 방지 기어를 통해 처음 병 마개를 열어 정품임을 확인한 뒤에는 개봉 전 상태

로 되돌릴 수 없게 설계돼 위조가 어렵다고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이 위조방지 시스템은 임페리얼 12년산에만 적용됐으며, 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원가 상승분은 자체 흡수해 가격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 제품 출시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신문과 잡지는 물론,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에 대대적인 제품 광고를 진행하는 한편, 경품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 행사 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프랭크 라베르(Franck Lapeyre) 사장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임페리얼 트리플 키퍼는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청각·촉각·시각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위조방지 장치”라며 말면서 “개척적인 리더십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주류시장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한 전자태그를 양주에 부착하는 국제청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청의 사업에 파트너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이면서 “이 사업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랭크 라베르 사장은 “사업 종료 후 국제청과 업계가 함께 바람직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현재 개발한 장치에 이것까지 추가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페리얼 트리플 키퍼

❁ 신 제 품 ❁

(주)유비케어

전자동 정제포장시스템 '유팜 오토팩' 출시

헬스케어 솔루션업체인 (주)유비케어(대표이사 김진태)는 약국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약을 조제하고 포장하는 전자동 정제 포장시스템 '유팜 오토팩'을 본격 출시했다.

유비케어는 약국의 규모와 처방패턴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약국용으로 라인을 구분하고 대형 총 4개 모델, 중형 소형 각 1개 모델씩 총 6가지 모델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유팜 오토팩은 카세트 시스템과 세계 최초 특허를 획득한 FSP(Free Shape Packing)시스템을 적용해, 처방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에 맞는 약품을 정제, 포장해 전자동 정제 포장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정제, 포장의 모든 과정에서 약품에 손을 댈 필요가 없는 '클린조제'를 실현해 약품 조제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생, 건강문제를 방지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국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경영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존 자동조제시스템은 반 알, 특수형태 등의 약 정제 시 손을 이용해 약을 분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클린조제'가 어려웠다.반면, 유팜 오토팩은 어떤 형태의 약품이든 FSP 시스템에 약을 붓기만 하면 자동 조제가 가능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약국을 정기방문해 소모품 및 재고관리를 지원하는 '발렛 서비스(Valet Service)'를 도입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유팜 오토팩 사용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몇 년 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클린조제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약국이라는 '클린조제 약국' 보증표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비케어 약국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으로 선정하는 등 '클린조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류에 맞추어 유비케어의 차별화된 전자동 정제, 포장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품관련 문의는 유비케어 약국콜센터(02-2105-5002)나 전국 대리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주)오토닉스

미소 Spot형 포토센서 BJN 시리즈 출시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는 비구면 정밀 광학계를 사용, 최소 $\varnothing 0.2\text{mm}$ 의 극소 물체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적색광 협시계 미소 Spot형 포토센서 BJN 시리즈 4종을 새롭게 출시함으로써, 글라스 검출용 BJG 시리즈와 함께 소형 고성능 포토센서 BJ 시리즈 제품군(BJ, BJG, BJN)의 선택 폭을 더욱 넓혔다.

$\varnothing 0.2\text{mm}$ 미소 물체의 검출이 가능한 협시계 반사형 포토센서 BJN 시리즈는 비구면 정밀 광학계를 사용하여 미소 Spot(BJN50: $\varnothing 2.0\text{mm}$, BJN100: $\varnothing 2.5\text{mm}$)을 구현했으며, 검출 지점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광축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전원 역접속 보호회로, 출력 단락 과전류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자동 상호 간섭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센서의 밀착 설치가 가능하고, 보호구조 IP67(IEC 규격)을 구현했다.

BJN 시리즈는 극세 빔을 구현했기 때문에 틈새나 작은 구멍을 통한 검출이 가능하며, 흑색과 백색의 차이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 센서로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토닉스는 포토센서 연구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이 분야에서 매년 17~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BJN 시리즈의 출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됐다.



(주)코닉스

실속형 압력 전송기 PTF30 시리즈 출시

제어계측기 전문 기업 (주)코닉스(대표이사 박환기)는 피크치 홀드 기능, 입출력 스케일 기능 등 성능과 신뢰성은 보다 높이고 가격은 낮춘 실속형 압력 전송기 PTF30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PTF30은 코닉스의 기존 제품 KT-302를 대체하는 압력 전송기로, 보다 뛰어난 신뢰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PTF30 시리즈는 엄격한 자체 신뢰성 시험 규격을 통과했으며 가스안전공사의 방수, 방폭 검정을 통과한 제품으로 품질은 물론 내구성도 크게 향상됐다. 또 내노이즈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외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PTF30 시리즈는 낮은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한 제품으로 피크치 홀드 기능, 전면키를 통한 디지털 입력 기능, TUF(Two Unit Function) 기능, 사용자 보정 기능, 표시 스케일 기능, 입출력 스케일 기능, 이동 평균 필터 기능, 자기 진단 기능, 잠금 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입출력 스케일 기능은 압력 레벨을 원하는 입출력레벨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H-RG(User High Range), L-RG(User Low Range)'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입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피크치 홀드 기능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스템의 이상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억시키는 기능으로, 실시간 확인을 하지 않아도 입력의 피크값을 확인할 수 있다.

코닉스 영업부 진영준 이사는 “코닉스가 새롭게 선보인 PTF30 시리즈는 상하수도 및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가격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이며, “보급형 시장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주)

'천인지오' 출시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정황)는 일반증류주인 '천인지오'를 출시했다.

'천인지오'는 '하늘(天)과 사람(人), 땅(地)이 함께 빚어낸 술'이라는 뜻으로 쌀원료 100%로 빚어낸 증류식소주 15%를 함유한 일반증류주이다.

알코올 도수 19.5로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고, 부드럽게 넘어간다. 또한 흰색 반투명의 고급스런 병 모양과 쌀을 디자인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식 선술집(이자까야, 로바다야끼 등), 일식 퓨전주점, 회전초밥 전문점의 증가에 따

업계동정

라 일본 주류인 '사케' 등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이미 '화요', '안동소주', '일품진로' 등 프리미엄 소주인 증류식 소주가 출시됐으나 높은 가격(업소 판매가 1만원~3만5000원)으로 대중화되지 못했고 '사케' 역시 비싼 가격으로 주 소비층인 20~30대 젊은 층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업체 관계자는 “‘천인지오’의 빠른 인지도 확산을 위해 색시하고 카리스마 이미지를 가진 김혜수 씨를 광고모델로 한 지면 광고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후디스(주)

'후디스 청정 저지방우유' 출시

친환경 식품전문기업 일동후디스(주)(대표이사 이금기)는 로하스 인증을 받은 청정우유의 기술을 토대로 진하고 고소한 맛의 '청정 저지방우유'를 새롭게 출시했다.

'일동후디스 청정 저지방우유'는 일반우유보다 약 40% 지방함량을 낮춰 유지방 함량을 1.5% 이하로 만든 프리미엄 저지방우유로 비만 어린이나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하다.

일동후디스의 김인호 이사는 “저지방우유에 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맛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점을 착안해 일동후디스 식품연구소의 축적된 노하우로 지방의 함량은 낮추돼 진하고 고소한 맛은 살린 청정 저지방우유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샘표식품(주)

'바로먹는 수타짜장 · 삼선짬뽕' 출시

60년 발효명가 샘표식품(주)(대표이사 박진선)에서 짬뽕한 가을철 입맛을 돋아주는 '바로먹는 수타짜장'과 '바로먹는 삼선짬뽕'을 출시했다.

'바로먹는 수타짜장'과 '삼선짬뽕' 제품은 옛날 정통 수타방식으로 반죽해 면발이 손으로 반죽한 것처럼 부드럽고 쫄깃한 점이 특징이다.

튀기지 않아 더욱 담백하고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사용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짜장면을 집에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바로먹는 삼선짜뽕’은 각종 야채와 해산물로 볶아 만든 얼큰하고 진한 정통 짜뽕국물의 맛과 기름에 튀기지 않은 담백한 면이 잘 조화되어 조화를 이루고 굵은 면발로 짜뽕면발의 쫄깃함이 살아있다.

저지방, 無 콜레스테롤 제품으로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며 홍고추, 양배추 등의 각종 야채와 새우, 오징어, 홍합 등의 각종 해산물로 볶아 만들어 얼큰한 짜뽕 맛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웅진식품(주)

‘자연은 아세로라’ 출시

웅진식품(주)(대표이사 강정석)의 주스브랜드인 ‘자연은’이 국내 최초로 아세로라를 음료화 한 ‘자연은 아세로라’를 출시했다.

‘자연은 아세로라’는 레몬의 34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아세로라를 상큼한 맛과 향으로 담아낸 과즙음료이다.

아세로라는 천연의 비타민C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는 열대 과일인 고온의 환경에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비타민C를 풍부하게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로라의 천연 비타민C는 아름다운 피부를 기꺼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바이러스 등을 막아주는 등 미용 및 건강유지에 도움을 준다.

‘자연은 아세로라’에는 합성된 비타민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 낸 천연 비타민C(아세로라 과즙)가 하루 비타민C 권장량만큼 들어가 있어 동안 피부 만들기에 열심인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비타민C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연은’ 브랜드 매니저 박수찬 과장은 “야채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은’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피부 건강까지 생각하는 요즘의 소비자를 위해 ‘자연은 아세로라’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245ml의 소용량 페트로 휴대성을 높여 젊은 타겟에게 더욱 어필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주)

‘상하목장 저지방우유’ 출시

매일유업(주)(대표이사 정완)의 유기농 유제품 브랜드 상하목장은 유기농 우유와 유기농 요구르트에 이어 유기농 저지방우유를 출시했다. 매일 상하목장 저지방우유는 유기농 원유 100%에 지방함량이 2% 이하인 유기농 저지방 우유로 유기농 낙농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전북 고창지역 14개 유기농 인증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로 생산된다.

아침 8시에 집유를 시작해 단시간 내에 바로 한정 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갓 짜낸 유기농 우유의 영양과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냈다. 또한 국내 최초 최첨단 ESL 무균화 시스템과 마이크로필터레이션 공법으로 인체에 유해한 세균과 미생물을 완전히 차단했다.

매일유업의 신근호 CM은 “지난 6월 출시한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와 유기농 요구르트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유기농 저지방우유를 추가로 출시하게 됐다”며 “2010년까지 유기농 사업부문 연간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을 달성 ‘유기낙농’이라는 낙농분야의 새로운 영역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주)

‘고기전용쌈장’ 출시

CJ제일제당(주)(대표이사 김진수)은 기존 ‘고기맛을 살려주는 고기전용쌈장’을 튜브 용기에 담아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튜브형 고기전용쌈장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의 용기 디자인은 쌈장의 주원료인 콩을 모티브로 했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튜브 색을 ‘녹색’으로 표현했다. 또 용기에 곡선을 주어 그림감을 높였으며 별도의 손가락을

이용해 종지에 담지 않고도 의도한 만큼만 짜서 쓸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CJ제일제당 쌈장 담당 김선영 씨는 “고기 맛을 살려주는 고기전용쌈장은 2002년 출시 이후 짜지 않고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박스형 제품”이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며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편의성을 높인 튜브 제품 출시로 그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해찬들 쌈장은 합성보존료와 착색료, MSG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의 발효기술을 사용, 자연 친화적으로 생산해 지난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주)한국야쿠르트

‘닥터제로’ 출시

(주)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양기락)는 프리미엄 한방 숙취 해소음료 ‘닥터제로’를 출시했다.

‘닥터제로’는 오리나무, 헛개나무, 오가피 등 10종의 한약재 추출물과 미배아대두발효추출액 1000mg, 벌꿀 등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김원수 유통마케팅팀장은 “술자리가 많은 30-40대 직장인들을 위해 ‘닥터제로’는 숙취 해소에 좋은 음료”라며 “올 4분기 50만개 이상, 내년에는 500만개 이상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판매는 전국의 약국 체인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1차 유통되고 향후 할인점과 도소매점으로 확대해서 판매 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중순에는 소비자 샘플링과 ‘포토 이벤트’ 그리고 TV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